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업계, FY2010 최대 화두는 해외시장 진출

- 최근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자국 보험시장에서의 성장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임.
 - 저출산, 소득 감소 등으로 일본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미츠이스미토모해상 · 아이오이손보 · 닛세이도와손보가 통합해 생긴 MS&AD인슈어런스그룹홀딩스는 향후 그룹 전체 이익의 약 3%를 인도, 중국, 브라질 등 해외 신흥시장에서 창출하기로 하고, 현재 전 세계 41개국에 달하는 영업망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임.
 - 또한 손해보험재팬과 니혼고와손보의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한 NKSJHD도 M&A(인수합병)를 통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전개해 2014년에는 해외부문 사업의 수익 규모를 올해 예상치인 30억엔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60억엔까지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함.
- 전문가들은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력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공격적인 신상품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음.
 - 전문가들은 손해보험업계가 주요 해외시장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경우, 현지 정부의 자국기업 우선 정책과 같은 까다로운 진입 장벽이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강력한 판매망을 가진 현지 유력 회사들과의 협조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.
 - 아울러 신흥시장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및 주택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연령과 소득에 맞는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4/2)